

옛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 탄흔도 정밀감식

1997년 광주시에 기증한 3장 5·18기록관, 국과수에 의뢰 당시 기증자·목격자도 수소문 헬기 기총소사 규명될지 주목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소문과 증언만 무성했던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 의혹에 관한 진실 규명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1997년 광주은행으로부터 기증받아 소장 중인 '총알에 뚫린 유리창 3점'에 대한 정밀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5·18 당시 증언만 무성했던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의 물증으로 삼을 수 있는 총탄 흔적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최근 발견되면서 5·18기록관도 전문기관에 유리창 파손 경위 분석을 의뢰하기로 나선 것이다.

5·18기록관이 분석을 의뢰하기로 한 유리창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금남로 3가에 위치했던 광주은행 옛 본점 건물 8층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되어있는 광주은행 옛 본점 건물 8층 유리창. 광주은행 옛 본점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총탄이 날아든 광주 금남로 3가에 위치해 있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 있던 유리창으로, 당시 계엄군이 쓴 총탄이 도심 한복판 건물과 도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날아들었던 참극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가로 1.6m·세로 1.7m 크기의 유리창에는 지름 5cm 크기, 가로 0.8m 세로 1.7m의 작은 유리창 2장에는 지름 2.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 당시 총탄이 관통한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점은 기

록관 1층에 전시 중이며 나머지 한점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1997년 11월 본점을 옮기면서 유리창 3점을 광주시에 기증했고, 이후 지난 2015년 개관한 5·18 기록관으로 옮겨졌다. 광주은행 측은 이같은 총격 피해가 1980년 5월 20일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5·18기록관 측은 80년 당시 금남로 1가

쪽에만 고층 건물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으로 유리창에 총탄 흔적이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18기록관 측은 국과수 분석 의뢰 외에도, 당시 광주은행에 근무하면서 유리창을 기증한 직원과 5·18 당시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다. 유리창이 8층 어느 방향에 매달려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하고, 건물 내부에 남아있을 지도 모를 총탄 흔적도 찾아 나설 예정이다.

5·18기록관 정호문 연구사는 "유리창 감식과 관련해 국과수와 전화로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며, 조만간 감식을 의뢰하는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 유리창이 국과수 분석을 통해 80년 5월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건물에 인접한 전일빌딩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물 10층 내부에서 150여 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국과수 관계자는 "육안으로 건물 구조와 발견된 총탄 흔적을 살핀 결과, 5·18 당시 전일빌딩보다 고층 건물 주변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헬기 사격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바 있다. <김현호기자 khk@kwangju.co.kr>

전남 성평등 낙제점... 전국 최하위권

여가부 평가...광주는 중상위권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5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평가'에서 전남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조사 대상 8개 분야 가운데 의사결정분야 20점, 보건분야 96.6점으로 각각 14위, 경제활동분야 66.2점으로 15위, 교육·직업훈련분야 88.9점, 문화·정보분야 81.1점으로 각각 최저수준인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분야는 63.6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경제활동분야 71.3점, 교육·직업훈련분야 94.7점으로 각각 8위, 북

지분야 86.1점으로 6위, 보건분야 98.2점으로 5위를 기록하면서 '성 평등 중상위' 지역으로 분류됐다. 다만 가족분야의 경우 63.6점으로 최하위인 16위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전체와 시·도별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 양성평등 정책과제와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국가 및 지역 성 평등 지수'를 측정해 발표한다. 종합지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측정된다.

평가에선 '완전 성 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하고, 성적은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먼지 날린다" 업체 협박 금품 챙긴 사이버기자 적발

화순경찰청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날린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로 모 환경신문 기자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화순과 나주 일대의 공사현장 8곳을 찾아 분진이 날리는 현장을 취재한 뒤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건설업자를 협박해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현금뿐만 아니

라 건설업체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30차례 이상 차량 주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진시설을 갖추고 물뿌리기 작업을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미량의 먼지는 발생한다"며 "문제가 될 정도로 먼지가 날린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서 점검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돈을 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현금뿐만 아니 <최순=조성수기자 css@>

경찰관 직무상 비위 때

상급자 무조건 징계 않기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피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부하 직원의 직무상 비위에 지휘 책임을 지고 징계받는 일이다. 이제는 비위 직원 상급자가 무조건 징계를 받는 일은 없어진다.

경찰청은 소속 직원이 직무유기,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감독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때만 징계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내부 비위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의 지휘라인에 있는 상급자에게도 기계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제한 조치가 현장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공금 횡령, 공금·향유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직장 내 성 비위, 음주운전 등 16개 의무위반행위 유형을 두고, 이런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 점검이나 경고를 줬다. 검재과 경고는 낮은 수준의 징계이긴 하나 인사기록에 반영돼 향후 승진 등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7차례 처벌받고도...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쇠고랑'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처벌돼 무려 7차례나 처벌받은 30대 남성

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쇠고랑 신세.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38)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밤 11시55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에너지 앞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귀가 조치됐지만,

상습 음주 운전 전력과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에 적발된 날 이씨는 친구와 수완지구에서 술을 마시고 2km가량 떨어진 집에 가려고 변화가 쪽이 아닌 한적한 도로를 택했지만 500m도 가지 못하고 경찰 단속에 걸려 귀가 조치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든 소식을 접하고 다행은 후회. <김현호기자 khk@kwangju.co.kr>



정유년 맞아 닭 그렸어요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3일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닭그림이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광주 중흥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그린 닭 그림들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 두번째 AI 발생...육용오리농장서 검출

전남 확진농가 16곳

영암에서 두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AI 발생지 주변 방역대에 포함된 영암군 신북면 한 육용 오

리 농장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30일 폐사체가 발견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반남면 농장 변경 3km 이내 농장이다. 축산당국은 반남면 농장 변경 3km 이내

닭, 오리를 살처분하면서 농가마다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면서 신북면 농장에서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영암과 인접한 나주 반남면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에도 AI가 발생해 주변 농가 급류 살처분 뒤 시료 검사에서 3건의 AI

가 확인됐다. 올해를 전남 AI 확진 농가는 나주 9곳, 해남 2곳, 무안·장성·진도·구례·영암 1곳씩 등 모두 16곳이다.

영암군 시종면 오리농장에 이어 이번엔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신북면 농장도 추가 확진 판정이 유래해 영암도 AI 복수 발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7. **1.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3시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2리 36